



## ■ 미리보는 2008 프로야구



## “V10 가는 길에 장애물은 없다”

“타이거즈 10번째 한국시리즈 MVP에 도전한다.”  
2008 시즌을 앞둔 KIA 타이거즈의 분위기가 좋다. 지난해 꿀찌에서 시범경기 1위팀으로 환골탈태한 KIA는 4강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승자다운 여유와 패기를 뒤늦은 선수들은 내친김에 1997년 이후 맥이 끊겼던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되찾고 명가 재건을 위해 나설 생각이다. 가장 의욕이 넘치는 이는 주장 장성호다. 1997년 프로 2년차 장성호는 당시 한국시리즈에 나서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맛보았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 막중하다. 9년 연속 ‘3할타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꾸준함의 대명사 장성호는 올 시즌 한방 있는 타자로 탄선의 무게를 더할 생각이다. 전지훈련 내내 등 균육 통증으로 고생했던 장성호는 뒤늦게 출전한 시범경기 2번째 타석만에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팬들로부터 ‘역시 장성호’라는 찬사를 받았다.

‘빅 초이’ 최희섭은 시범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거포 본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최희섭은 “고향 팀의 ‘V10’을 이끄는 게 가장 큰 목표다”고 말할 만큼 우승에 대한 욕심이 많다. 최희섭은 탄선의 중심에서 예전의 화끈한 공격 야구를 선보여 구역진 팀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서재웅·최희섭 팀 이끄는 ‘버팀목’ 다짐

장성호·한기주 “이름값 확실히 해야죠”

이용규와 밸데스는 타고난 야구센스와 기동성으로 KIA의 대도 계보를 이을 계획이다. 확실한 1번타자 이용규는 지난 가을부터 기나긴 슬럼프로 고생했지만 악비리 덥게 피나는 연습을 통해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거포 융병 타자의 전형을 끝 빠른 밸데스는 그라운드를 누비느라 유니폼이 성할 날이 없다. 상대 내야진의 정신을 놓이는 기동력과 KIA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내야를 든든히 하는 수비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동蹲에는 서재웅이 있다. 인원 힙스트리밍(위 허벅지) 부상으로 당당했던 서재웅은 오랜 메이저리그 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로 개막전에 맞춰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컨디션 점검과 출전했던 3번의 시범 경기에서 서재웅은 매번 날카로움을 더하여 ‘컨트롤 마법사’의 면모를 갖추었다.

유쾌한 리마는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쇼맨십으로 팬들의 시선을 받은 리마는 시범경기에서 1.06의 방어율로 2승을 챙겼다. 빅 리거 경험을 바탕으로 서재웅과 원투펀치로 빅 게임에 나서준다면 KIA의 ‘V10’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동훈은 예비역의 힘을 과시할 계획이다. 유동훈은 5차례 시범경기에서 등판해 6과 1/3이닝을 소화하며 1승2득점을 챙겼다. 방어율은 제로다.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위력적인 싱커로 KIA 불펜진의 중심에 선다는 각오다.

올림픽 대표팀의 뒷문을 지켰던 한기주는 한층 성숙한 투구로 마운드에 오른다. 프로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던 2006년 시즌 초반 불안한 모습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한기주는 뒤늦게 위력적인 투구로 팀의 4강을 이끌었지만, 한화 류현진에게 신인왕을 빼앗겼다. 그러나 한기주는 ‘가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광만은 라이벌 류현진에게 양보할 순 없다며 시즌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lt;3&gt; KIA 주전들 개막 결의



## ■ 조범현 KIA 감독 출사표

## “팬들 야구열정 성적으로 보답”

“호남의 뜨거운 야구 열정,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는 29일 삼성과의 개막전을 앞두고 26일 기자회견을 한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2008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V10’을 반드시 달성해 팬들의 열정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조범현 감독은 시범경기 전보다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시범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이 야구 명가다운 패기를 되찾은 것에 대한 민족감의 표시다.

“고참 선수들이 솔선수범해 전체적으로 알찬 훈련을 해왔고, 시범경기에서는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승부를 펼치며 승리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팀 분위기를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개막전을 비롯해 올 시즌 타선과 마운드의 운영에 대한 큰 틀도 밝혔다. 삼성과의 개막전 선발은 융병 투수 후세 리마로 낙점, 배영수와 일전이 예상된다. 부상에서 탈출한 서재웅은 4월 1일 두산과의 홈 개막전에 정식으로 첫 선을 보인다.

“서재웅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더 여유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많은 KIA 팬들이 서재웅을 기다려온 만큼 훌륭한 선발을 맡길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고교 투수 흑사 방지”

## 인권위, 야구협에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교 야구 투수들이 과다한 투구로 흑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26일 대한 야구협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51) 의원은 지난 2006년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투수 3명이 짧은 대회기간에 220여개의 무리한 투구 및 연투로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흑사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선수가 소속된 학교측은 “고교시절 맹활약했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중학교 투수들로 흑사로 인해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한다”고 답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적정한 한계 투구 수가 개인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 할 수 없으나 협회는 선수 흑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기종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있도록 지명타자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협회가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과 선수생명 단축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없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3-1140, 5210 원 011-012-2532  
(광주우편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모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일가공인중개사

☎ (0)23-8216 원 011-609-0896  
(광주우체국 부근)

##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변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전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전로 대지 185㎡(50평) 4층 23억

광장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장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별관동 찬전네거리 코너 대지 249㎡(80평) 4층

용문동 3번지 대지 1,190㎡(360평) 8억

월드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 토지매매

온천동 4차로변 대지 2,627㎡(804평) 당 160억

온천동 농지 3,986㎡(1,200평) 2층4층10억

월드 대로변 주거지 1,000㎡(300평) 4층8천만

불광동 26㎡(2.157㎡) 700평 당 250만

도로변 전자상점 주거지 6,611㎡(2천평) 20억

민정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 전원주택

청평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남동 주거지 1,490㎡(450평) 14천평

금남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평

시내동 농지 3,640㎡(1,100평) 3층6천만

당동 농지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 임야

화순 도로 권리지역 52,900㎡(1만6천

평) 당 8만

화순 도로 약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로 3,200㎡(3.3㎡당 6만

평) 화순 남면 권리지역 165,000㎡(5만) 5억

화순 한성 218,000㎡(6만2천평) 3.3㎡당 6

천평당

화순 이랑 33,000㎡(1만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전체 대로변 330㎡(103평) 8억

전체 대로변 330㎡(103평) 8천만

화순 계곡진 6,600㎡(2천평) 8천만

보증금 지연납 30,000㎡(3천평) 1억3천만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0)383-5221 원 011-809-5221  
(구)상무대 정문)

## 빌딩

• 대지600 건물1,352 보36억/㎡ 세3, 100만원/(자녀학교고성급) 움자12억 대 979㎡(대구교현교)는

• 대지260/건2,000 보20억/㎡4,000

만원 웅자18억 대기65억

• 대200/건1,250 보95억 8억 월1,700

만원(신축) 웅자18억 대기34억

• 대200/건1,200 보900 보증금30억 월세1,

100만원 대기75억5천

• 대300/건1,200 보1억/월800만원 대

매기15억5천

## 땅

(상무지구)

• 2,800㎡(804평) 3.3㎡당 1,200만원

727㎡(220평) 3.3㎡당 1,200만원

(유동)

• 450㎡(136평)

3.3㎡당 1,200만원(유동)

•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장역입구)

(기타지구)

• 시내역 대로변3,000㎡(900평) 예상지정, 허가한도 1,200만원(한국은행)

• 주거지 1,400㎡(400평) 140평당 877㎡(266평) 3.3㎡당 1,200만원(수지면)

• 농장 관수동 3,000㎡(900평) 2층2

천평 3.3㎡당 1,110만원(동수동)

• 창동 3,760㎡(1,140평) 140평당 100평

•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하나은행·한국은행·한국은행·한국은행)

• 금민자구 1,652㎡(500평) m 당 700

만원(신축)

&lt;p